

“ESG 경영 실천” 포스코건설 ‘같이 짓는 가치’ 비전 선포



1 ES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포스코건설이 화상으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 포스코건설-티케이케이미칼-형지엘리트가 국산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근무복 도입' MOU를 맺었다.

포스코건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자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공생 가치 창출, 지역사회와의 동행,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성희 대표이사 직속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과 환경·지배구조·건설산업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시민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는 사업 수주부터 수행에 이르는 단계별 ESG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모니터링해 환경과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준에 따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500만t 생산 인프라 구축, 신재생 발전, 수처리·폐기물 사업 등 친환경 사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2



3



4 포스코건설의 '2020 기업시민보고서' 표지 5 인천 소래포구 클린오션봉사 6 인천 초등학교 대상 해양환경오염예방 교육

5월에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와 해상풍력·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건립한 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가 국내 처음으로 비주거 시설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것을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 브랜드인 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지구환경', '건강한 삶'이라는 ESG 개념을 접목했다.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친환경 자재 적용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단지 조경, 실내 맞춤 정원 단계별 특화설계 등 환경적·사회적 요소를 강화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탄소중립에도 신경 쓰고 있다. 밸류체인상 탄소 감축과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했다.

탄소 배출량 저감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 수행, 국산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근무복 도입, 출장 시 공유 전기차 활용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건설공사로 인한 사업장 인근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서식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행할 때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와 스틸 고양이 급식소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통영시의 섬마을 폐교를 활용한 고양이 보호 시설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동물 구조 및 임시 보호 공간 마련, 벌 개체 보호를 위한 도시 양봉,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및 어린이 환경 교육프로그램인 '초록놀이 학교' 운영 등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안전'은 근로자 인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스마트



5



6

안전 솔루션을 구축하고, CCTV 4천여 대를 전 현장에 추가 배치하는 등 예방 중심 안전 활동을 강화했다. 또 누구나 익명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도 운영 중이다.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ESG가 확산하도록 이크레더블과 공동으로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사 등록과 평가에 활용 중이다. 평가 결과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해 협력사 ESG 역량 교육과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고 저탄소, 친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사와의 기술 협력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200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 내부고발 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CP 활동을 통해 2021년 CP 등급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A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기업 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토대로 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 'A+'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해 전년 경영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